

SK하이닉스, 엘피다 인수 포기...

최태원 회장,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아 ... 물리적 시간도 부족

SK하이닉스가 세계 3위의 D램 생산기업인 일본 엘피다(Elpida)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5월4일 대치동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후 “엘피다를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에 있어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데, 지금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M&A를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로 인수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SK하이닉스의 정기 이사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사들은 엘피다 실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숙고 끝에 엘피다 인수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엘피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만한 정보와 시간이 부족했다”며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엘피다 인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04>